

보도자료

국정감사 간이평가

2023.10.24.(20장)

#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전화. 02) 523-8760~7 (E) goodlaw@goodlaw.org (우) (우.08502)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212 코오롱에스텐 10층 공동사무국 법률소비자연맹

**2023년 국감은 “이재명 국감” “선관위 국감” “총선(표밭)국감” “C학점”**

야당(민주당)은 의정평가에 국감 제외, 정책대안보다 정쟁성 비난만  
여당(국민의힘)은 전(前)정부탓만, 리더없는 맥빠진 국감, 용두사미  
**-- 모니터들이 뽑은 “국정감사 잘한 의원” 명단(28명-최종평가 아님)--**

- ▲ 국감기간 강서구 보선, 4년전 총선도—벌거벗은 임금이 된 ‘부정선거 의혹들’  
- 국정원·선관위 등의 선거시스템 합동 보안점검 결과, 100% 부정선거 가능
- ▲ 선진국처럼 365일 국감은 커녕 최소기간 <국감법(30일)> 마저 18일로 단축  
- 감사일수는 20년전인 2004년(201일)보다 줄고(138일)  
- 감사대상기관은 역대 최다(791개 기관) - 위원회별 평균 8.8일 형식적 국감
- ▲ 해마다 늘어나는 현장시찰, 꼼수국감?(출석 의원도, 내용도 ‘깜깜’)  
- 현장점검 및 현장시찰도 출석 공개하고, 활동내용을 동영상으로 국민께 알려야  
- 산업위(이재정)의 2일 동안 여당 빠진 채 제주도 시찰(수소 시설 등 방문)  
- 문체위(이상헌)는 금요일 마다 시찰(전국 체전 개막식 참석)
- ▲ 이번 국감 : 강서보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양평고속도로, 이재명 수사, R&D예산 감축, 문정부 통계조작 등 이슈에 매몰  
- 이·팔 전쟁, 북한의 급습에 대한 대책수립은커녕 국방부 국감부터 파행  
- 경제, 민생위기에 ‘나라 말아먹고 있다’ ‘경제폭망 기우제’ 등 막말
- ▲ 하루 10개 이상 피감기관을 동시감사  
- 하루에 53개 피감기관 감사하는 과방위 등 11개 상임위에서 23일이나  
- 한마디도 묻지 않으면서 한번에 수십개 기관 불러놓고 하루종일 대기시켜/여전한 갑질

1. **[평가개요]** 지난 25년 동안 전국의 국감현장을 정밀모니터·평가해온 우리 ‘국정감사 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외 22인)은 2023년 제21대 국회(21-4) 국정감사에 대해 국회 안에서의 국정감사는 온라인으로, 국회 밖에서의 국정감사는 현장 모니터링까지 병행하는 등 전방위 온·오프라인으로 모니터하여 국감을 간이평가합니다. <<국감최종 평가 및 “국리민복상” 시상은 국감 종료 후 정밀평가과정을 거쳐 12월 중순 발표예정임>>
2. **[국감성적]** 우리 국감모니터단은 제21대 국회 4년차 국정감사, 윤석열 정부의 두번째 국정감사, 1988년 부활된 지 36년째 국정감사, 여야 정권교체 후의 여소야대 두번째 국감인 금년도(21-4) 국정감사를 “C학점”<작년 중간평가엔 D학점>으로 평가합니다.  
①총선이 코앞인데 국정원의 보안점검 결과, 온갖 선거해킹 가능성이 제기된 것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음모론’ 정쟁만 하고, ②이·팔전쟁으로 북

장사포에 대한 위험성이 노정되었음에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이 없으며, ③제대로 신문도 하지 않으면서 **국감도중 증인채택을 위한 상임위 회의**로 파행을 조장하고, ④경제 민생 위기 속에도 '국가 말아먹고 있다'. '경제폭망 기우제' 등 막말 정쟁(10.19. 기재위)이 일어났으며, ⑤국감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 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문제, 양평 고속도로 문제만 부각해, 윤정부 1년 6개월간의 부정부패나 예산 낭비요소 지적 등 국정감사의 본래적 기능에 미흡했다**는 평가입니다.

《2023년도 국정감사의 긍정/부정 평가점》

긍정적 평가점	부정적 평가점
① 선거관리시스템 해킹 가능(사전투표 시스템 문제노출)과 북한의 기습공격에 취약한 9·19 군사합의의 문제점에 경각심 제고	① 가장 짧은 18일 동안 많은 피감기관(791개) 선정으로 수박겉핥기 (자료준비 쉬는 날 만들고, 피감기관은 한꺼번에 몰아서 해치우기도--)
② 피감기관장의 소신발언 목소리가 커짐(다만 입장 망각해 대드는 경우도 빚어짐)/정부 감싸기는 예년에 비해 줄어듦	② 총선이 코앞인데 온갖 투표·개표부정이 가능한 선거시스템에 대해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하는 야당과 여당
③ 지난해는 의사진행발언이 국감질의시간보다 많은 경우가 많았으나, 올해는 사라짐(1건만 목격)	③ 지난해와 같이 국정감사 도중 상임위 회의 열어 증인채택논란으로 상임위 회의 파행까지(산업위, 교육위 등)
④ 파행 등은 지난해 보다 줄고, 형식적인 국감 시간이나 의원 자리지키는 지난해보다는 약간 나아짐	④ 경제위기속 경제국감은 여야당 막말로 이전 투구하고, 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양평고속도로 밖에 부각시키지 못함

《참고》 제20대 국회 첫째 국정감사는 **집권여당의 보이콧으로 'F'학점**을 받았고,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은 '기습 전 조국' 국감으로 'D'학점이었고, 21대 국회 1차년도는 **코로나(COVID-19) 첫 국정감사로 'D'학점**이었고, 2차년도는 '대장동' 국감으로 'C'학점이었으며, 3차년도 국감 역시 **팬덤국감으로 'D'학점**이었음.

3. **[국감특색 및 요약]** ① **여소야대 국회로, 국정감사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1년 6개월 간의 국정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사실상 첫 국정감사이자, 외교·안보·경제 등 위기 속 도약이나 후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국정감사임에도 첫째**, 지난해와 같이 당의 명령이나 받은 듯 특정 안건에 대해서는 말꼬리 잡기와 끼어들기, 의원간 고성은 여전(와중에 행안위 10.13. 중앙선관위, 환노위의 10.12.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성비하, 모욕발언으로 유감·사과도) **둘째**, 감사준비, 자료준비를 이유로 휴감하면서 두세차례 나눠서 해야 할 것을 하루에 몰아 국감을 하고, 현장 시찰까지 계속 하고 있다는 것, **셋째**, 국정감사는 정부의 예산낭비, 부정비리, 국정운영의 제도적 미비 등 국정전반을 점검해서 차년도 예산심사와 입법에 반영하는 헌법상의 막중한 권한·책무임에도 예산낭비, 부정비리 지적보다, **특정 사안에 대해 수사를 하듯이 하는 정쟁 국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② 국가 백년지대계를 세우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철민, 간사 김영호·이태규)는 증인 불출석 논란으로 감사를 일시 정지하거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위해 반쪽위원회가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 역시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 회의를 열어 증인채택을 하였습니다(10.13. 감사 후, 정택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 국감 증인 채택).

③ 또한 준엄한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원을 통제해야 할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 간사 소병철·정점식)는 하루 종일 국정감사는 제쳐두고 의사진행발언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파행을 하였습니다. 감사원의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정치감사와 적법감사로 대립하여 하루종일 정쟁의 양상을 보였습니다.<감사원 국정감사 ▶전체시간 13시간 30분, ▶실제감사 7시간 38분 ▶질의응답시간 4시간 36분 ▶의사진행발언 2시 20분 ▶질의횟수 41회보다 의사진행발언횟수가 78회로 많음-이번 국감중 유일> 대법원 국정감사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파장으로 여·야간의 책임공방만 가득하였으며,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10.17)에서도 검찰의 현안 수사와 관련해 여·야간 설전을 많이 하였습니다.

④ 이스라엘 대한 하마스의 선제공격으로 인해 이·팔 전쟁의 전운 속에서 외교를 전담하는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태호 간사 이용선·김석기)의 국정감사가 첫날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으로 허비하더니, 국감 둘째날에는 윤미향 의원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 참석과 관련해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해 국감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파행했습니다.

⑤ **2021년에는** 국정감사 시작부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장 의원석 손팻말' 설치 논란**으로 여야가 대립하여 국정감사를 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거나 귀한 국민의 시간을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데 허비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생하였고, **교육위원회** 역시 팻말이 설치되었으나,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국방부장관 임명을 철회하라'**는 피켓이 있었고, 결국 **국방위원회**(위원장 한기호, 간사 김병주·성일종)가 국방부장관 임명관련 대립과 피케팅 논란으로 귀중한 국민의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2023.10.1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장제원)의 한국방송공사 국감(10.17)에서도 피케팅 때문에 오전에 일부 파행을 하였습니다.

⑥ **감사가 아닌 범죄수사같은 국정감사**로는 **기획재정위원회**의 문 정부 통계조작 수사, **국토교통위원회**의 양평고속도로 계획변경, **교육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행정안전위원회**의 오송참사와 이태원 참사 책임공방과 관련된 감사였습니다.

⑦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태호)는 이·팔 전쟁으로 인해 국정감사계획서를 두 번이나 수정하면서 4개 반을 나눠서 비행시간이 국정감사 시간보다 더 걸리는(?)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주이스라엘대사관 국감은 취소),

⑧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해도 국감도중 시찰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전남 목포에 있는 전국체전 참가 등을 위해 현장시찰을 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 역시 10월 16일과 17일 제주도에서 수소 공장 방문 등 시찰을 하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는 반쪽 시찰이었습니다.

⑨ 역대 최다의 피감기관을 동시 국정감사로 하다 보니, 기관증인까지 거의 대부분 하루 종일 질의 한번 받지 못하고, 앉아 있다가 가는 일이 빚어졌습니다(10.10.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출연 연구기관 24개 중 4개만 질의 받음. 10.13.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3개 기관 중 10개 기관은 1차례도 질의 받지 못함. **국감질의를 받지 못한 기관현황은 10~11쪽 일자별 도표 참조**).

⑩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피감기관의 도를 넘는 언행**이 지적되었고,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감사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은 '답변태도가 오만방자하게 저게 뭐냐'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고,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감사에서는 피감기관 직원이 **감사위원의 자료를 들춰보는 것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었으며,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무역투자진흥공사** 감사에서는 피감기관 증인이 의원실에 감사관련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언론진흥재단** 감사(10.17)에서는 기관증인이 이사장승인도 없이 출국(정권현 언론재단 상임이사, 이사장 결재 없이 직원 3명과 일본행)하여 질타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공영홈쇼핑** 감사(10.20)에서는 기관증인인 공영홈쇼핑 감사가 '이재명 특보'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질의를 받던 중 답변내용과 태도가 문제되어 국감이 파행되기도 하였습니다.

4. **[모니터소회]** 김대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상임공동단장은 “권력은 집중(분권-Balance)되거나 통제(감사-Check)가 없으면 반드시 부패하게 된다.(Lord Acton)”며 “국정감사는 국가가 헌법에서 부여한 정부 각 부처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우리 NGO모니터단도 국가가 이러한 국정감사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모니터/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국가기관 구성을 이루는 핵심인데, 이 한 표의 신성한 행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온갖 부정선거 의혹이 큰 사전투표·전자개표 제도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들이 뽑은 “국정감사 잘한 의원” (위원회별 여야 1명씩)》

-- 추천 많더라도 결석 등이 있는 의원은 제외 --

상임위원회	국민의힘	민주당
법 제 사 법	유 상 범	김 승 원
정 무	윤 한 홍	민 병 덕
기 획 재 정	송 언 석	유 동 수
교 육	이 태 규	강 민 정
과 학 기 술 정 보 방 송	윤 두 현	고 민 정
외 교 통 일	정 진 석	전 해 철
국 방	이 헌 승	기 동 민
행 정 안 전	조 은 희	이 해 식
문 화 체 육 관 광	김 승 수	이 개 호
농 립 축 산 식 품 해 양 수 산	정 희 용	이 원 택
산 업 통 상 자 원 중 소 벤 처 기 업	김 성 원	김 회 재
보 건 복 지	이 종 성	정 춘 숙
환 경 노 동	김 형 동	윤 건 영
국 토 교 통	김 정 재	민 흥 철

2023년도(21-4) 국감 간이평가 보도자료 전체(20쪽)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홈페이지(www.goodlaw.org)

#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문의 : 흥 금 애 집행위원장, 윤 소 라 사무국장. goodlaw@goodlaw.org

# 국정감사제도 관련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거나 고질적인 병폐

## 1. 시기(정기국회 전) 및 기간(30일) 모두 법과 원칙 안지키고 예외로 운영

19대 국회(2012)에서 정기국회 전 30일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눠서 실시하지 못하도록 감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즉,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 중에 진행하였고, 감사기간도 30일이 아닌 20일 내외로 정하여 실시하였다. 더욱 이번 2023년도 국정감사에는 명목 국정감사일수도 18일로 편성하였다.

《정기국회 전 위원회별로 국정감사로 되어 있는 현행 국정감사법상의 국감기간 현황》

국회	정부	집권여당	연도	시작일(요일)	종료일(요일)	명목일수
제19대	이명박정부	한나라당	2012	2012.10.5.(금)	2012.10.24.(수)	20일
	박근혜정부	새누리당	2013	2013.10.14.(월)	2013.11.2.(토)	20일
	박근혜정부	새누리당	2014	2014.10.7.(화)	2014.10.27.(월)	21일
	박근혜정부	새누리당	2015	2015.9.10.(목)	2015.10.9.(금)	23일
제20대	박근혜정부	새누리당	2016	2016.9.26.(월)	2016.10.18.(화)	23일
	문재인정부	더불어민주당	2017	2017.10.12.(목)	2017.10.31.(화)	20일
	문재인정부	더불어민주당	2018	2018.10.10.(금)	2018.10.29.(월)	20일
	문재인정부	더불어민주당	2019	2019.10.02.(수)	2019.10.21.(월)	20일
제21대	문재인정부	더불어민주당	2020	2020.10.07.(수)	2020.10.26.(월)	20일
	문재인정부	더불어민주당	2021	2021.10.01.(금)	2021.10.21.(목)	21일
	윤석열정부	국민의힘	2022	2022.10.04.(화)	2022.10.24.(월)	21일
	윤석열정부	국민의힘	2023	2023.10.10.(화)	2023.10.27.(금)	18일

※국정감사 및 조사에관한법률 제2조(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 2. 애써서 증인신청 해놓고, 철회는 왜?

- 자신이 신청하고 자신이 철회/ 대부분 기업증인/ 국감 중 의심가는 행동하지 말아야 / 신청의원의 철회 신청으로 철회된 건수가 21대 국회 3년간만 152건(전체 증인철회건수는 188건)이나

이번 2023년도 국정감사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추가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 국민의 힘없는 반쪽 회의를 하였고, '위원장에게 증인신청 철회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의결없이 위원장과 신청의원이 협의하여 철회할 수 있도록 위임해 달라'고 의결(2023. 10. 13)하였다.

정무위원회의 10월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시에도 여야간의 증인 신청 논의를 위해 국정감사를 정회하고 증인신청을 위한 상임위 회의로 그 중요한 국정감사에서 기관증인

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였다.

참고로 이번 국정감사 기간중 위원회 회의는 23차례나 열렸는데, 대부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와 관련된 안건이었다.

《연도별 증인요구수 및 신청위원의 철회요청에 의해 철회된 건수》

감사연도	일반증인 요구수	철회증인 총수	신청위원의 철회요청
2020년도	200	53	37
2021년도	190	64	53
2022년도	231	71	62

※ 출처 및 자료 : 국회사무처, 연도별 국정감사 통계자료집 재가공

《10.18.까지 2023년도 국정감사 기간중 위원회 회의 현황》

일자	위원회	회의	안건
2023-10-10	법제사법	6차	대법원장 권한대행 및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
2023-10-10	정무	5차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
2023-10-1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5차	2022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3-10-10	외교통일	3차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및강제동원역사왜곡교과서승인규탄결의안,대한민국의명백한독도영유권을확인하고일본교과서의역사왜곡및후퇴를규탄하는결의안,대한민국의명백한독도영유권을확인하고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및교과서역사왜곡을규탄하는결의안(위원장대안),2023년도국정감사계획서변경의건, <b>2023년도국정감사증인출석요구변경의건</b>
2023-10-10	행정안전	3차	2023년도국정감사증인출석요구 추가 및 철회의건
2023-10-1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5차	2023년도국정감사증인변경요구의건 2023년도국정감사증인및참고인추가출석요구의건
2023-10-11	법제사법	4차	2023년도국정감사계획서재변경의건 2023년도국정감사증인등출석요구의건
2023-10-11	외교통일	4차	2023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
2023-10-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4차	2023년도국정감사증인에대한동행명령장발부의건, 2023년도국정감사증인등출석요구의건
2023-10-11	보건복지	3차	국정감사증인,참고인출석요구철회및추가의건
2023-10-11	환경노동	3차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변경의 건, 2023년도 국정감사 참고인 비공개 의 건, 청원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2023-10-12	행정안전	4차	<b>2023년도국정감사참고인출석요구철회의건</b>
2023-10-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5차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2023-10-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6차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요구 건
2023-10-12	환경노동	4차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2023-10-12	국토교통	4차	2023년도국정감사증인출석요구 추가의건
2023-10-13	법제사법	7차	2023년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 및 비공개 의 건

일자	위원회	회의	안건
2023-10-13	산업통상자원중 소벤처기업	7차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2023-10-16	법제사법	8차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2023-10-16	정무	6차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2023 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2023-10-16	행정안전	5차	간사선임의 건
2023-10-17	정무	7차	.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2023-10-18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6차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자료 출처 : 국회공보/국회 영상회의록			

또한,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감사장에 최근 횡령·불공정거래 등 잇단 금융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준법감시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인들이 사죄한 것 외에는 제대로 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비효율적인 증인신문 실태 외에도 매년 증인신청한 의원이 증인신청 철회를 하여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필요에 의해서 증인 신청을 했는데, 왜 증인신문을 하지 않고 철회를 하는 지, 대부분 기업 증인들로 뒷거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들게 하고 있다.

#### «제21대 국회 연도별 철회증인의 철회사유 분석»

연도	위원회	철회증인 총수	신청위원 철회요청	여야간사협의 (여야협의)	증인대체 (변경)	증인→ 참고인	비공개 간담
2020	기재	1	1	0	0	0	
	교육	2	2	0	0	0	
	행안	7	3	0	2	2	
	농해수	15	15	0	0	0	
	산자중기	12	0	11	0	1	
	복지	7	7	0	0	0	
	환노	9	9	0	0	0	
	소계	53	37	11	2	3	0
2021	정무	4	4	0	0	0	
	교육	7	7	0	0	0	
	과방	1	1	0	0	0	
	행안	2	0	1	1	0	
	문체	1	1	0	0	0	
	농해수	31	29	0	0	0	2
	산업	6	4	0	2	0	0
	복지	7	7	0	0	0	0
	환노	4	0	4	0	0	0
	국토	1	0	0	1		
	계	64	53	5	4	0	2
2022	정무	12	12	0	0		
	과방	5	1	4	0		

연도	위원회	철회증인 총수	신청위원 철회요청	여야간사협 의 (여야협의)	증인대체 (변경)	증인→ 참고인	비공개 간담
	행안	1	0	0	1		
	문체	5	5	0	0		
	농해수	20	20	0	0		
	산자중기	15	14	0	1		
	복지	9	9				
	환노	3	0	3			
	국토	1	1				
	계	71	62	7	2	0	0

### 3. 결과보고서도 채택 않고 공개기

국정감사모니터단이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를 시작한 15대 국회말부터 조사해 본 결과, 제20대국회부터 결과보고서 채택이 안된 경우가 있었다(2016년도 미래창조과학위원회 국정감사).

여야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결과보고서 채택이 안되었기 때문이다.

제20대 국회 이후 여야간의 대결이 심해지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이다. 2023년에 국정감사 후 9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법개정을 하였으나, 지켜질지 미지수다.

제21대 국회에서 지난해(2022년도) 국정감사의 결과보고서에 대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은 위원회가 6개나 되고 있다. 과방위는 국정감사기간 도중(2023.10.11) 회의를 열어서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기도 하였다. 위원회 차원에서 의결을 거쳤으나 본회의에 상정이 안된 경우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다.

2021년도 결과보고서는 아직 처리되지 않는 위원회가 2곳이 있다. 교육위원회와 국방위원회다.

2020년도 결과보고서를 채택 하지 않은 의위원회는 4곳이나 된다. 국회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선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의 시정조치 요구내역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우에는 국정감사계획서의 피감기관 보고자료에 2022년도 국정감사 시정 조치 결과보고서 내용이 빠져 있다.

당연히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결과보고서가 여야의 입장차로 채택이 되지 않는 국회의 모습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무법천지'(법사위의 2023. 10. 13. 이탄희 의원이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에 대한 표현) 국회이다.

#### <<제21대 국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본회의 채택현황>>

국감조법 15, 16조 <1: 채택, O : 미채택>

상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건수	2020년도 국정감사	2021년도 국정감사	2022년도 국정감사
국회운영위원회	2	0	1	1
법제사법위원회	2	1	1	0
정무위원회	3	1	1	1

상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건수	2020년도 국정감사	2021년도 국정감사	2022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3	1	1	1
교육위원회	0	0	0	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	1	1	0
외교통일위원회	3	1	1	1
국방위원회	2	1	0	1
행정안전위원회	3	1	1	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1	1	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2	1	1	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1	0	1	0
보건복지위원회	3	1	1	1
환경노동위원회	1	0	1	0
국토교통위원회	3	1	1	1
정보위원회	3	1	1	1
여성가족위원회	3	1	1	1
계	39	13	15	1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증인 채택 현황 및 증인신문 결과를 포함한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고서를 제출받은 의장은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위원회로 하여금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7.]

제16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국회가 제1항에 따라 감사 결과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1]  
 ③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개정 2023.7.11]  
 ④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⑤ 국회는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⑥ 국회는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조치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전문개정 2018.4.17.]

#### 4. 국정감사장에 출석요구 배석시키고, 질문 않기로

2023년도 초반에 다수피감기관에 대해 한꺼번에 감사하는 감사장만을 분석해 본 결과, 대상기관에 질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나왔다.

역대 최다의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선정해 놓고, 감사일수는 대폭 줄여서 더욱 더 그런 현상이 더 많아 지게 되었다.

다만 교육위원회 10월 13일 한국고전진흥원 등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지난해와 같이 13개 대상기관이 질문을 받기도 하였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10월 16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무려 17개 피감기관을 소환하였는데 오전 감사만 하고 오후에는 현장시찰을 떠났다(17개 중에서 2개 피감기관만 질의를 받음).

10월 17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5개 기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상헌)에서는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녁 6시경에 '오늘 기관증인들이 많이 왔는데 한마

디도 못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면서 '한마디 말이라고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2명 기관장이 마무리 발언을 함).

참고로, 환경노동위의 경우 2020년 10월 12일, 16개 기관을 불러놓고 질의조차 하지 않은 피감기관이 11개나 되었고, 2021년도에도 10월8일 17개 기관을 불러놓고 14개 기관장은 하루 종일 대기하다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갔다. 2022년도에 이어 2023년도에도 환노위는 10일중 5일이 10개 기관이 넘는 피감기관을 동시감사하고 있어 지나치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4년 내내 53개 기관을 정해 놓고 감사위원(의원)이 질의할 피감기관만을 국감당일 참석케 하고, 그 마저도 질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2023년도 국정감사 중 다수 피감기관 선정 질의를 받지 못한 기관현황»

위원회	감사일자	대표대상기관	대상기관 수	질의받지 못한 기관	
				기관수	기관명
행정안전 (김교흥)	2023.10.10	행정안전부	10	5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법제사법 (김도읍)	2023.10.10	대법원	7	3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외교통일 (김태호)	2023.10.10	외교부	6	4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협력센터 한·아프리카재단
정 무 (백혜련)	2023.10.10	국무조정실	27	20	소관 연구원 이름없음 (24개중 4개만 질의받음)
과기정통 (장제원)	2023.10.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9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산업진흥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우체국시설관리단
교육 (김민철)	2023.10.11	교육부	8	4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문화체육 (이성현)	2023.10.11	문화재청	10	4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고궁박물관 궁능유적본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산업 (이재정)	2023.10.12	중소벤처기업부	8	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보건복지 (신동근)	2023.10.13	식품의약품안전처	13	10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원회	감사일자	대표대상기관	대상기관 수	질의받지 못한 기관	
				기관수	기관명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산 업 (이재정)	2023.10.1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3	3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환경노동 (박정)	2023.10.16	기상청	17	15	수치모델링센터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수도권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대구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국립기상과학원 항공기상청 APEC기후센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문 체 (이상헌)	2023.10.17	한국콘텐츠진흥원	15	2	뉴스통신진흥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발언만)
환경노동 (박정)	2023.10.17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2	2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5. 국민의 소중한 시간을 정쟁과 감정싸움으로 파행

지난해 보다 줄어들었지만 국방위원회가 피케팅으로 파행을 하다가 저녁무렵에야 국감을 진행하였고, 국정감사 도중 말꼬리 잡기, 끼어들기로 파행 등 원활하지 못한 국정감사를 진행한 곳이 있었다.

### «국정감사 전반전, 파행성 정회가 있었던 감사장 현황»

국감모니터위원 보고기준

일자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 소	파행이유 및 결과
10.10(화)	국 방	국방부	국방부 (서울 용산)	더불어민주당의 '국방부 장관임명 철회하라' 피케팅과 국방부 장관 패싱으로 국감진행이 안됨
	교 육	교육부	국회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관련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여야간 입장차로 파행 후 감사진행
10.12(목)	과학기술 정보방송 통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방사능 휴대용 기기 효과를 두고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으며 한때 파행
	외교통일	통일부	국회	국회의원의 일본 집회 참석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하다가 저녁에 산회도 못하고 끝남

일자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 소	파행이유 및 결과
	국 방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던 국회 국방위원회는 12일 합동참모본부 국감을 진행하면서도 의사진행 발언 문제로 설전
10.13(금)	법제사법	감사원	국회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 배석 문제를 놓고 파행한 끝에 감사를 재개했으나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를 놓고 고성 공방과 신경전
	교 육	한국고전번역원 등	국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장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동서대학교의 동서재단 부동산 문제를 지적에 대해 감사범위를 놓고 설전
10.17(화)	과 방	한국방송공사 등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자리에 붙은 '공영방송 낙하산사장 결사반대' 손팻말 때문에 오전 파행
10.18(수)	보건복지	건강보험공단	국회	자료 제출관련 피감기관장의 답변(자료제출 강요)에 대한 여야간의 설전
10.20(금)	산자증기	공영홈쇼핑 등	국회	공영홈쇼핑 감사의 '이재명 특보'이력관련 질의답변 중 여야간의 설전
10.20(금)	교 육	서울시교육청 등	국회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사퇴 필요성 제기 관련 설전

«참고 2022년도 초반국정감사 파행 등 현황»

- (1) 법사위(위원장 김도읍, 간사 기동민, 정점식)의 대법원 감사(10.4)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감사 통보논란 지연
- (2) 외통위(위원장 윤재옥, 간사 이재정, 김석기)의 외교부 감사(10.4)  
'박진 나가라'논란 파행
- (3) 외통위(위원장 윤재옥, 간사 이재정, 김석기)의 외교부 감사(10.4)  
'비속어 동영상 틀자'논란 파행
- (4) 행안위(위원장 이채익, 간사 김교흥, 이만희)의 행안부 감사(10.4)  
'버르장머리 없다'막말 고성
- (5) 과방위(위원장 정청래, 간사 조승래, 박성중)의 과정부 감사(10.4)  
왜 종이 업무보고 안주나 정회
- (6) 교육위(위원장 유기홍, 간사 김영호,이태규)의 교육부소관 기관 감사(10.7)  
개나 쥐 발언
- (7) 국방위(위원장 이헌승, 간사 김병주, 신원식)의 합동참모본부 감사(10.6)  
'깡통안보'논란
- (8) 법사위(위원장 김도읍, 간사 기동민, 정점식)의 감사원 감사(10.11)  
'감사위원도 와라' 파행
- (9) 환노위(위원장 전해철, 간사 김영진, 임이자)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감사(10.12)  
'수령께 충성'에 대한 답변태도
- (10) 농림위(위원장 소병훈, 간사 김승남, 이양수)의 해경청 국정감사(10.13)  
'양곡관리법개정안 단독처리'사과논란
- (11) 과방위(위원장 정청래, 간사 조승래, 박성중)의 11일 국정감사(10.13)  
위원장과 간사간 사과논란

«참고 팻말 관련 2021년도 국정감사 파행일지»

일자	위원회(위원장)	피감기관	이유	결과
10월 1일(금)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광온)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	손팻말 논란으로 정회	가장 먼저 회복
	정무위원회 (위원장 윤재옥)	국무조정실 등	손팻말 논란으로 정회	오후에 감사
	교육위 (위원장 조해진)	교육부 등	손팻말 논란으로 정회	오후에 감사
	과방위 (위원장 이원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손팻말 논란으로 감사시작 못함	오후에 감사시작
	외교통일위 (위원장 이광재)	외교부	손팻말 논란으로 18분만 정회	오후 감사하다가 5시 47분 중지
	행정안전위 (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부	손팻말 논란으로 감사시작 11분에 정회	오후에 감사시작
	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손팻말 논란으로 11시 12분경에 정회	잠시정회사다가 국민의힘만 들어와서 2시 예고
10월 5일(화)	기획재정위 (위원장 윤후덕)	기획재정부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개최도 못한 채 파행	오후에 감사시작
	과방위 (위원장 이원욱)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생략건으로 간사에게 버르장머리 발언으로 정회	46분만에 정상화
	국방위 (위원장 민홍철)	국방부	오전 10시 국감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국감장 좌석 앞에 국민의힘이 설치한 대장동 관련 피켓을 제거해달라고 요구해 시작못함	국감이 무산됨
	행정안전위 (위원장 서영교)	경찰청	손팻말 논란으로 늦게 시작	정상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장 김태흠)	농림축산식품부	손팻말 논란으로 국감 시작 못함	오후에 개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위원장 이현승)	산업통상자원부	지연시작 여당은 '윤석열(父) 집. 광상도(子) 50억. 아빠의 힘.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라는 문구의 피켓을 준비했다.	여야 간사가 합의해 피켓을 내리기로 하고 나서야 국감

일자	위원회(위원장)	피감기관	이유	결과
	국토교통위 (위원장 이현승)	국토교통부	대장동 피켓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며 파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좌석에 대장동 특검 피켓을 내걸자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항의에 나서며 양측 간에 거친 설전이 오갔다.	가다 서다를 반복함
10월8일(금)	보건복지위 (위원장 김민석)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의힘에서 근조 리본과 정치적 구호가 쓰인 마스크를 쓰고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감사위원들의 항의로 감사 지연	지연 개의

손 팻말이 아닌 원인으로 국정감사가 중단된 경우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와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가 유일하였다.

일자	위원회(위원장)	피감기관	이유	결과
10월 5일(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	방송통신위원회 등	위원장과 간사간의 막말	20분 정도 정회
10월 8일(금)	행정안전위(위원장 서영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인사말 후 이석관련	이석하기로 결정

## 6. 가뜰이나 감사시간도 없는 데 일반증인 신문까지

### 증인채택 때문에 파행도 빚어지는 이유가 뭘까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원성 증인이나 정쟁을 야기할 증인 신청에 신중해달라고 공개적으로 당부하기도 했다.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재갑 의원이 김성호 수산업경영중앙연합회 회장에게 질문서를 내 던지는 모습이 방송화면으로 나오기도 하였다. 이날 11개 기관증인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는데, 질의응답시간은 3시간 15분 정도에 불과했다.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일반증인(참고인 포함) 신문이 있었다고 보고된 곳은 모두 28군데 국정감사장이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매 일정마다 일반증인 신문이 있어서 5회 였고, 다음으로 정무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각 4회 일반증인 신문이 있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3회 있었다.

교육위원회는 첫날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일반증인 신문이 있었고, 10월 20일 기관증인 추가를 통해서 한경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었다. 첫날 국정감사는 일반증인 불출석으로 파행을 빚기도 하였다.

법사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례적으로 '부산돌려차기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하여 참

고인 신문을 하였다.

일반 증인 신문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사고나 사건의 당사자로서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한 기업의 대표나 일반 인사들이 많고, 국정감사장에서는 유감을 표하거나 사과의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실태를 파악하는 것에는 유효하지만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를 감독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를 통해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10. 20까지 국감모니터위원 보고에 따른 일반증인신문이 있었던 국정감사장 현황》

감사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2023-10-10	문체위	문화체육관광부
2023-10-10	국토위	국토교통부 등
2023-10-10	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0	행안위	행정안전부 등
2023-10-11	정무위	금융위원회
2023-10-11	환노위	환경부
2023-10-11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등
2023-10-11	교육위	교육부 등
2023-10-12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등
2023-10-12	국토위	한국도로공사 등
2023-10-12	복지위	보건복지부 등
2023-10-12	문체위	문화재청 등
2023-10-12	행안위	경찰청 등
2023-10-12	환노위	고용노동부
2023-10-12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 등
2023-10-13	행안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2023-10-13	농해수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2023-10-13	복지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023-10-16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등
2023-10-16	농해수위	산림청 등
2023-10-17	정무위	금융감독원
2023-10-17	문체위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2023-10-17	환노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2023-10-19	정무위	국민권익위원회 등
2023-10-19	문체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2023-10-19	산자중기위	한국전력공사 등
2023-10-20	복지위	국민연금공단 등
2023-10-20	농해수위	해양경찰청 등
2023-10-20	법사위	대전고법 등

**7. 시간 제약으로 인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의 질의/ 답변**

⇒ **국민의 충분한 알권리 차단**

상임위원장은 감사시작할 때 질의시간을 7분, 5분, 3분 지정하면서 꼭 질의시간을 지켜 줄 것을 당부하는 말을 하나, 대부분 의원들은 질의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양해를

구해서 1분 정도 더 질의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질의시간을 넘기면 마이크가 중단되어 소리없는 국정감사를 하다가, 피감기관의 답변으로 질의내용을 알게 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현상은 여전하였다.

질문시간을 시간을 제한하여 일문 일답 질의를 할 경우에는 피감기관의 답변이 길어지면 충분한 질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일괄적으로 하라고 주문하는 경우가 많다.

즉, 피감기관이 답변을 하려고 하면 가로막고 일괄질문을 하면서, 긴 질문에 짧은 답변만을 요구하고, '예, 아니오'로만 답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일문일답의 원칙**이 사라지고 있어 피감기관의 실정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충실한 국감이 되기 어려워지고 있다.

제한 시간이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추가 시간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대로 질의를 하여 마이크 커진 상태에서 무슨 질의를 하는지도 모른 상태가 지속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일문일답이 아닌 일괄질의를 하게 되는 폐해가 생기는데, 이번 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국정감사(10. 11)**에서 변재일 의원이 일괄질의를 하자, 피감기관이 질의답변 시간을 넘겨 답변을 하였고 위원장이 그러한 기회를 주자, 윤영찬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피감기관에 답변기회를 마냥 주면 질의 의원의 질의 취지와 다른 답변을 할 때 재반박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러자 장제원 위원장은 일괄질의로 질의시간을 다 사용하기 때문이라면서 피감기관에게 답변할 기회를 주는 것은 정상적인 진행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마침 점심식사시간이라 중식 정회하기도 하였다.

## 2023년도 국정감사 주요 통계

### ▣ 감사위원(국회의원)이 100% 모두 출석한 위원회(10. 19.까지)

국회공보를 통해 조사된 2023년도 국정감사 출결현황을 살펴보면, 감사위원이 100% 출석을 한 위원회는 5곳이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감사일수가 다른 위원회보다 많은데도 100% 출석률을 기록하였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우에는 현장 시찰을 하여 출석여부를 알수 없는 경우가 있는 그것도 금요일 마다 연속 두차례 시찰을 진행하였다.

#### «100% 감사위원 출석률을 기록한 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감사일수	감사위원수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6	18
정무위원회	백혜련	6	24
문화체육관광	이상헌	4	1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소병훈	5	19
환경노동	박정	5	15

### ▣ 국정감사까지 코리언 타임 아니면 특권의식의 발로

감사개시 시각이 10분 이상 지각한 감사(10.19 까지) 17군데

감사 개시 시각은 주로 10시에 시작되는 데 국정감사 계획서상의 감사개시시각을 지킨 위원회는 국방위원회의 2곳,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곳이었다.

《국정감사계획서상의 감사시간을 지킨 국정감사 현황》

감사일자	위원회	위원장	피감기관	장소
2023-10-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장제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세종청사
2023-10-12	국방	한기호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본부
2023-10-16	국방	한기호	방위사업청	국회

10분 이상 지각 개최한 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가 6번으로 가장 많았다. 정무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각각 3번,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가 1번, 외통위와 행안위, 복지위, 기재위가 각각 1번씩이었다.

《10분 이상 지각 감사개시한 위원회 현황》

번호	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감사개시시각
1	2023-10-10	법사위	대법원 등	10:20
2	2023-10-10	외통위	외교부 등	10:11
3	2023-10-11	법사위	법무부 등	10:24
4	2023-10-11	정무위	금융위원회	10:16
5	2023-10-11	환노위	환경부	10:14
6	2023-10-11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등	10:14
7	2023-10-12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등	10:19
8	2023-10-13	법사위	감사원	10:15
9	2023-10-13	행안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10:15
10	2023-10-16	법사위	헌법재판소 등	10:28
11	2023-10-16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등	10:11
12	2023-10-17	법사위	서울고등검찰청 등	10:30
13	2023-10-18	복지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0:12
14	2023-10-18	농해수위	농촌진흥청 등	10:12
15	2023-10-19	환노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10:21
16	2023-10-19	법사위	법제처	10:16
17	2023-10-19	정무위	국민권익위원회 등	10:10

▣ 23시 이상 심야 국정감사를 진행한 횟수는 총 10회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밤 11시 이후에 국정감사가 끝난 감사는 모두 10개 였다. 위원회별로는 모두 5개 위원회가 공교롭게도 2번씩 심야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별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환경노동위

원회, 정무위원회 등이었다.

일자별로는 1주차에 6곳인 반면, 2주차에는 4곳이었다.(10월 20일 교육위원회의 서울시 교육청 등 국정감사가 23시 25분에 종료) 모두 5곳이었다. 자정을 넘겨서 계속한 경우는 없었다.

《**밤11시를 넘긴 2023년도 국정감사 현황**》

일자	위원회	위원장	피감기관	대상기관수	끝난시간
2023-10-1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장제원	방송통신위원회	4	23:55
2023-10-10	국토교통	김민기	국토교통부	3	23:56
2023-10-11	법제사법	김도읍	법무부	5	23:44
2023-10-11	환경노동	박정	환경부	1	23:45
2023-10-12	환경노동	박정	고용노동부	1	23:23
2023-10-12	국토교통	김민기	한국도로공사	3	23:47
2023-10-13	법제사법	김도읍	감사원	1	23:55
2023-10-17	정무	백혜련	금융감독원	1	23:08
2023-10-1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장제원	한국방송공사	2	23:07
2023-10-19	정무	백혜련	국민권익위원회	2	23:10

▣ **10개 이상 피감기관을 놓고 동시감사한 횟수(10.19) 248개 기관 중 115개 기관은 질의를 못받아**

10월 19일까지 10개 이상 피감기관을 불러 놓고 동시감사를 실시한 횟수는 총 16회였다. 동시수감을 받은 기관수는 248개 기관이었으며 이중 감사위원의 질문을 받지 못한 기관은 115개 였다. 국방위원회의 경우에는 첫날 파행으로 인해서 30개 기관이 모두 한번도 질문을 받지 못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가 각각 3회 였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2회씩이었다. 정무, 국방, 행정안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1번이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까지 시찰을 제외하고 4일 국정감사를 했는데, 이중 3일이 10개 이상 피감기관을 불러 놓고 감사를 하였으며, 감사도중 감사위원이 피감기관이 많으므로 한번이라도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사진행발언(10.17, 콘텐츠진흥원 국감)까지 있었다.

《**10.19.까지 10개 기관 이상 동시감사를 시행한 현황**》

일자	위원회	위원장	대상기관	기관수	질의 못받은 기관수	비고
2023-10-10	정무	백혜련	국무조정실	27	20	
2023-10-10	국방	한기호	국방부	30	30	파행-질의없음

일자	위원회	위원장	대상기관	기관수	질의 못받은 기관수	비고
2023-10-10	행정안전	김교흥	행정안전부	10	5	
2023-10-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장제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9	
2023-10-12	문화체육관광	이상헌	문화재청	10	4	
2023-10-13	교육	김민철	한국고전번역원	13	0	
2023-10-1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이재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3	3	
2023-10-13	보건복지	신동근	식품의약품안전처	14	10	
2023-10-16	환경노동	박정	기상청	17	15	오후 시찰
2023-10-17	법제사법	김도읍	서울고등검찰청	11	0	
2023-10-17	문화체육관광	이상헌	한국콘텐츠진흥원	15	2	
2023-10-17	환경노동	박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2	2	
2023-10-19	문화체육관광	이상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4	4	
2023-10-1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이재정	한국전력공사	16	5	
2023-10-19	보건복지	신동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5	0	
2023-10-19	환경노동	박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	6	
계				248	115	

### ▣ 2023년도 국정감사(10.20.까지) 국회의원의 감사질의 응답시간 통계

국회 영상회의록 시스템의 국정감사 상황(10.10~20)을 분석해 보면, 국정감사 질의응답 시간은 명목 국정감사시간의 **56.72%**에 불과했다. 100시간 감사를 하였으면 실제 국정감사 질의응답이 이루어진 시간은 약 57시간에 불과하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에는 7일 동안 72시간 2분 국정감사를 하였고, 식사 등 정회시간을 제외하면 총 49시간 23분 33초 감사를 진행하였다. 이중 국회의원의 질의와 피감기관의 답변시간은 총 38시간 40분 51초로, 명목시간 대비 52.42%에 불과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질의응답시간이 32시간 46분 10초로 명목 감사시간인 63시간 13분의 51.84%에 불과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질의응답시간이 37시간 38분 7초로 명목 국정감사시간인 60시간 12분의 62.52%으로 질의응답시간 비율이 가장 높았다.

#### 《지방국감 등으로 영상회의록이 올라와 있지 않은 위원회 제외》

위원회	명목감사시간 (개시시~종료시)	실제시간 (명목시간-정회시간)	질의응답시간	명목감사시간 대비 질의응답시간
법사위	73:47:00	49:23:33	38:40:51	<b>52.42%</b>
정무위	72:02:00	47:48:23	42:13:18	<b>58.61%</b>

위원회	명목감사시간 (개시시~종료시)	실제시간 (명목시간-정회시간)	질의응답시간	명목감사시간 대비 질의응답시간
과방위	63:13:00	43:36:51	32:46:10	51.84%
행안위	52:04:00	35:25:30	29:47:26	57.22%
문체위	34:40:00	24:31:50	20:55:03	60.34%
농해수위	52:42:00	35:53:26	29:46:38	56.50%
산자중기위	57:36:00	37:35:20	30:12:04	52.43%
복지위	60:12:00	42:05:44	37:38:07	62.52%
환노위	49:29:00	33:56:09	28:00:49	56.61%
국토위	57:44:00	39:34:34	33:53:43	58.71%

※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2주차 지방국감, 교육위원회 2주차 지방국감, 국방위 1주차 파행 등으로 제외 (행안위는 지역경찰청 국감제외한 수치임) <끝>.

**한국의 국정감사는, 그나마 6.25전쟁과 독재를 극복하면서도 민주주의의 싹을 지켜낸 세계10위의 선진대국이 되는 나라의 역할을 해왔으나, 이제는 서둘러 상시 정책청문회 등 365일 상시 국정감사를 도입하지 않으면 부패공화국을 면할 수 없다**